

히말라야 지역의 불교조각

노남희, 308호 인도·동남아시아실 18:00~18:30

5세기의 인도 시인 칼리다사(Kalidasa)는 히말라야 산맥을 가리켜 ‘천국으로 가는 계단(stairway to heaven)’이라 표현한 바 있습니다. 아득한 높이와 장엄한 경관을 사랑하는 히말라야 산맥은 인도아대륙의 북쪽 경계에 해당하며, 예로부터 힌두교와 불교의 중요 성지로 여겨져 왔습니다. 히말라야 산맥 자락에 위치한 카슈미르, 라다크, 네팔, 티베트, 부탄에서도 일찍이 인도의 영향을 받아 불교와 힌두교 미술이 발전했으며, 조각의 경우 금속으로 만든 것이 많습니다.

티베트와 인도 사이 카트만두 분지에 위치한 네팔은 오래전부터 히말라야 지역 교역과 미술의 중심지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오랫동안 힌두교와 불교가 평화롭게 공존하며 양식과 도상에서 영향을 주고받았습니다. 불교조각은 인도의 굽타(Gupta) 시대 양식과 팔라(Pala) 시대 양식이 혼합된 모습을 보이며, 10세기부터 13세기 사이에는 무슬림의 인도 진출과 함께 인도의 승려들이 네팔이나 티베트로 많이 유입되어 인도 후기 불교에 해당하는 밀교계 도상도 유행하였습니다.

티베트에서는 7세기에 불교가 전해진 이래 790년에는 모든 백성이 불교를 믿도록 하는 칙령이 반포되었습니다. 10세기 후반부터 이어진 인도 승려들의 유입으로 불교와 불교미술도 급속히 발전하였고, 네팔과 마찬가지로 밀교계 도상이 유행하였습니다. 13세기에는 중국 원나라의 쿠빌라이 칸(Kublai Khan)이 티베트의 4대 종파 중 하나인 사카파(Sakyapa)에 장인을 요청하는 등, 중국 내 티베트 불교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티베트 양식이 유행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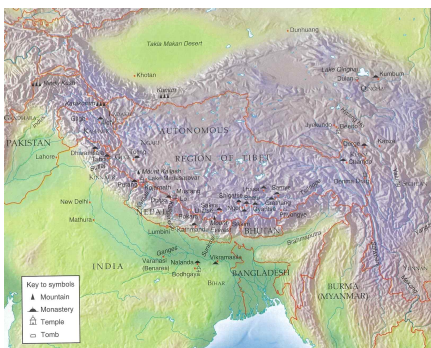


그림1. 히말라야 지역 지도



그림2. 문수보살, 14세기, 티베트, 황동



그림3. 관세음보살, 14세기, 네팔, 금동

특별전<아스테카, 태양을 움직인 사람들>(4)

정현, 121호 특별전시실 18:00~18:30

‘아스테카’는 마야와 잉카와 함께 아메리카 대륙 3대 문명으로 꼽힙니다. 그러나 아스테카는 우리에게 꽤 낯섭니다. 그들의 역사와 문화 대신, 전쟁과 인신공양의 잔혹한 이미지와 스페인 정복자를 자신의 신으로 오해한 멸망 이야기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메소아메리카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국가 가운데 하나였으며 견고한 통치체제 위에서 번영하였습니다. 활발한 정복 활동과 공물 시스템은 메소아메리카 전역을 하나로 연결하였으며, 예술과 지식의 발전도 상당했습니다.

국내에서 처음 아스테카를 소개하는 이번 전시는 그동안 우리가 관심 갖지 않았던 아스테카의 역사와 문화의 실제 모습을 살펴볼 것입니다. 최근 연구와 발굴 조사 결과, 아스테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아메리카 대륙 침략을 정당화하고 새로운 종교를 강요하였던 유럽 정복자의 과장과 왜곡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전시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잔혹함으로 치부하였던 그들의 희생제의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스테카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시스템은 그들의 독특하고 복잡한 세계관과 우주관을 바탕으로 합니다. 아스테카 사람들은 신들의 희생으로 태양과 세상이 탄생하고 올바르게 작동한다고 여겼으며, 인간 역시 이러한 신들 덕분에 존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전시에서는 먼저 아스테카 사회를 지배하였던 그들의 세계관을 소개한 뒤 자연, 경제, 전쟁, 정치, 예술, 지식, 제의 순으로 아스테카 문화의 다양한 측면을 살펴봅니다. 이번 전시가 그동안 역사와 신화가 혼재하고 과장과 왜곡으로 가려졌던 아스테카의 진정한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림1. 지하세계의 신
믹틀란테쿠틀리



그림2. 비와 풍요의 신
찰치우틀리구에 화로



그림3. 비의 신
틀랄록을 그린 항아리



그림4. 바람의 신
에에카틀



제676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22년 5월 25일)

토기로 본 고대사회의 변화

최정아, 102호 신석기실 19:00~19:30

박물관을 둘러보면 구석기시대부터 사람들이 만들거나 사용한 수많은 전시품을 볼 수 있습니다. 반짝이는 금귀걸이와 금관, 다양한 색상의 구슬, 세밀하게 그려진 그림 등 화려하고 아름다운 유물이 눈을 사로잡습니다.

박물관에 가장 많은 유물은 무엇일까요? 아마 토기일 것입니다. 토기란 점토를 물에 개어 모양을 만든 후 불에 구워 만든 그릇입니다. 제작 방법에 따라 도기·자기 등 다양하게 불리는데, 우리나라는 유약을 바른 자기를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토기라고 부릅니다.

가장 많이 발견(발굴)되는 유물인 토기는 상대적으로 표면 장식이나 형태가 다채롭지 못하고, 깨진 것도 많아 비교적 관람객의 주목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고고학자에게 토기는 과거를 연구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토기 연구는 다른 유물에 비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토기는 왜 중요할까요?

토기는 과거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토기를 관찰·분석하여 어떤 원료가 사용되었고, 어떻게 빚어졌으며, 어떤 환경에서 구워졌는지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 토기 내부에 남겨진 찌꺼기를 분석하여 무엇이 담겨졌는지, 당시 사람들이 무엇을 먹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토기의 형태나 무늬에 따라 종류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당시의 사회모습을 추론하는 단서가 됩니다. 고고학에서 토기는 편년의 기준으로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과학적 분석이 발달하지 않아 유물의 절대 연대를 알 수 없었을 때에는 토기를 이용하여 상대적인 선후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런 결과가 모여 토기 변화를 바탕으로 한 편년 체계가 형성되었으며, 이는 다시 발굴 조사한 유적의 시기를 추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집자리를 조사하던 중 바닥이 뽕족하고 입이 넓으며 표면에 빗살무늬가 그려진 토기가 발굴된다면, 이것은 신석기시대에 제작된 빗살무늬토기이기 때문에 신석기시대의 유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토기는 집단이나 사회, 국가 등을 구분하는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는 같은 시기에 존재하는 고대국가였으나, 사용하던 토기의 종류와 형태·제작 방법 등이 매우 다릅니다. 따라서 토기의 출토 양상을 통해 국가별 영역이나 교류 양상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정에는 토기에 대한 공통적인 믿음이 깔려있습니다. 토기는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생활도구로 현재까지 남아있는 물질자료 중 가장 많이 발견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나 편향된 사건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과거를 반영하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비교적 제작이 쉽기 때문에 사회의 발달이나 집단의 변화, 문화 변동 등에 따라 쉽게 변할 수 있습니다. 즉 토기의 변화는 단순히 제작자의 심리적 상황이나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사회상과 문화를 반영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림1. 빗살무늬 토기
(신석기시대, 서울 암사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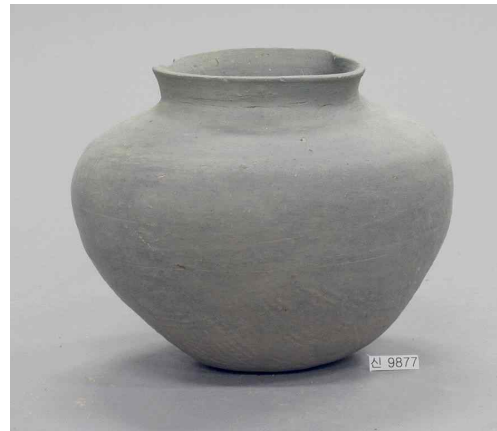


그림2. 짧은 목 항아리
(백제, 서울 암사동)



그림3. 몸이 긴 항아리(고구려)



그림4. 말무늬 굽다리 긴 목 항아리(신라)

제676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22년 5월 25일)

테마전 <호랑이 그림II>

이수경, 서화II실 202-2·3호 19:00~19:30

호랑이는 예로부터 '나쁜 기운을 물리치는 신성한 존재'로 여겨져 왔습니다. 선조들은 일상생활에 호랑이를 그린 그림이나 호랑이 등을 사냥하는 그림을 일상에서 활용했습니다.

<호랑이 그림 10폭 병풍>에는 소나무와 기이한 바위를 배경으로 날카로운 눈매와 이빨을 드러낸 사나운 줄범과 표범 열 마리와 새끼 범 세 마리가 등장합니다. 예로부터 줄범과 표범은 모두 범으로 불리었습니다. 이러한 인식의 반영인지 어미는 줄범이지만 새끼는 표범으로 그리거나(제1폭), 어미는 표범인데 새끼는 줄범으로 표현한 점이 흥미롭습니다.(제2·8폭). 제1·2·5·7·9폭에는 까치가 등장하는데, 까치와 호랑이는 좋은 소식을 불러오고 나쁜 기운을 물리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호렵도 8폭 병풍>은 호인胡人(만주족)들이 말을 타고 사냥하는 장면입니다. 제3폭에 검은 말을 탄 사내가 우두머리로 보이며, 주위에 악기와 깃발을 든 시종과 군사들이 있습니다. 제5·8폭은 넓은 들판에서 호인들이 사냥하는 장면입니다. 제4폭에 사냥으로 잡은 줄범이 말에 실려 있고, 제6폭에 호인의 추격에서 벗어나려는 표범이 있습니다. 이러한 호렵도는 병자호란 이후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궁중에서 제작되었으며, 김홍도가 잘 그렸다고 합니다.



그림1. <호랑이 그림 병풍> 부분, 조선, 19세기, 2021년 이건희 기증



그림2. <호렵도> 제4폭 부분, 조선, 19세기, 2021년 이건희 기증